

# Digital Currency W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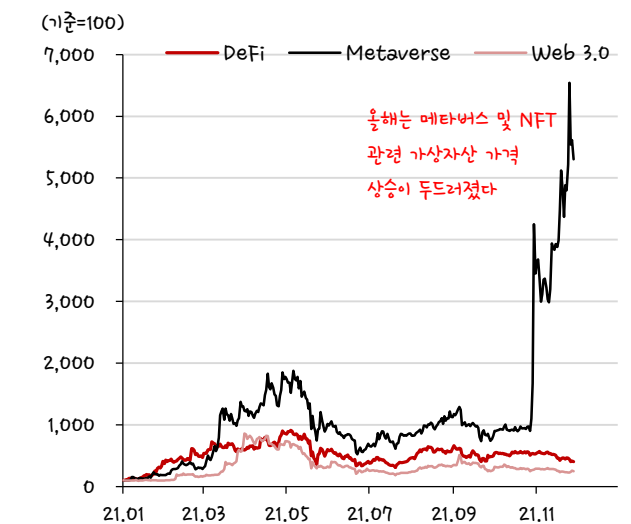


Analyst, 한대훈 / 3773-8515, handaehoon@sk.co.kr

2021/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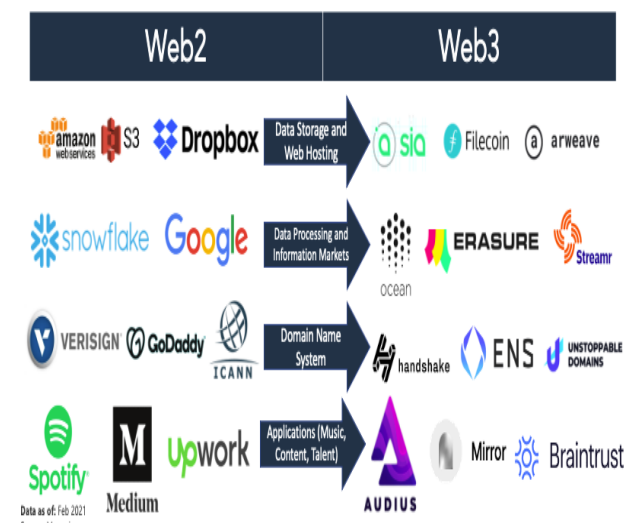
## 투자자들은 벌써 포스트 메타버스, 포스트 NFT 를 찾기 시작했다

올해 메타버스/NFT 관련 가상자산의 상승이 가장 가파랐다



자료: Coinmarketcap, SK 증권

웹 2.0 시대에서 웹 3.0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한 현재



자료: MESSARI, SK 증권

코로나 19의 오미크론 변이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가격도 하락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무산과 최근 가파른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의 빌미로 작용했다. 올해 전세계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메타버스 및 NFT 관련 가상자산의 가격도 조정을 받았다. 샌드박스를 비롯한 관련 가상자산의 가격도 주말동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메타버스와 NFT가 글로벌 메가트렌드라는 점에서 과거 2018년의 ICO와 같은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기엔 시기상조다. 하지만 그 동안에는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었던만큼, 지금부터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를 통해 어느 가상자산이라고 밝히기는 다소 어렵지만, 기대감이 아닌 실제로 적용되고 확장되는 가상자산으로의 쓸림현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주말간의 큰 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웹 3.0과 관련된 가상자산의 방어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이제 메타버스를 넘어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웹 3.0 시대에 대해서는 향후 인덱스 자료를 통해 언급할 예정이다). 웹 1.0 시대는 넷스케이프를 시작으로 아마존과 이베이 등의 성공 모델이 있었고, 웹 2.0의 시대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구글, 넷플릭스 등이 성공했었다. 다가올 웹 3.0 시대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 상의 생태계,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NFT 및 Di-Fi 등을 통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AR/VR 기술 등은 이를 뒷받침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IT 및 스마트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비트코인의 성공을 지켜본 투자자라면, 메타버스로 시작될 웹 3.0 시대에 발맞춰 유망한 종목과 가상자산을 고르는 작업이 시작됐다.